



육계자조금호. 결국 이대로 침몰하고 마는 것인가.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대전 유성 소재 흥인호텔에서 지난해 부결된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위촉(안)’을 의결하기 위해 4번째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또다시 유회됐다. 이는 2005년 12월 첫 대의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이후 1년5개월여일여만이다.



육계자조금호 또다시 암초를 만나다 두 번의 유회와 두 번의 부결... 육계자조금사업 시행 적신호



이날 총회에는 선출된 대의원 135명 중 정족수 68명이 참석해야 개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당초 개최 예정시간인 오후 2시를 훌쩍 넘어 3시가 넘도록 정족수는 채워지지 않았다. 결국 오후 3시 20분경 대의원 총회 무산을 알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해졌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66명. 2명의 대의원만 참석했다면 ‘유회’라는 불명예는 얻지 않았을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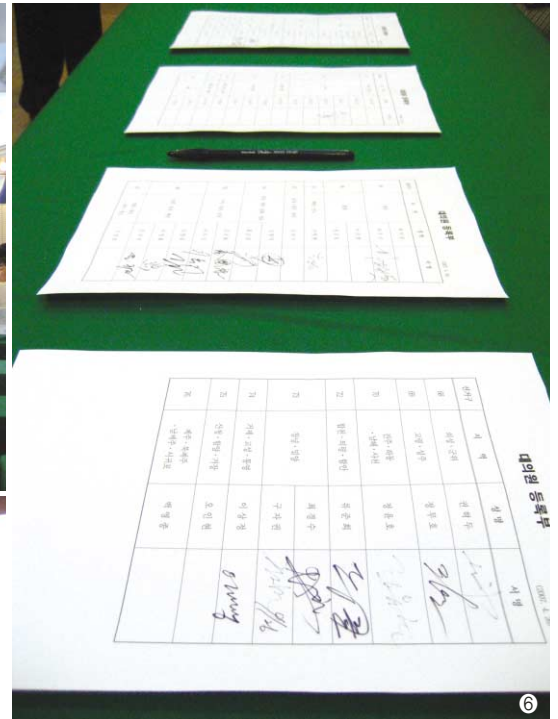
대의원 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이날 의결해야 할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위촉(안)’은 당연히 상정되지 않았다.

대의원 총회가 무산되자 이홍재 의장은 행사장을

- ① 정족수 미달로 개최조차 하지 못한 대의원 총회. 의장은 의장석에 앉아보지도 못했다.
- ② 총회 예정시간인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일부 대의원들이 대의원 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 ③ 한편 일부 대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회기 선언되길 기다리고 있다.



4



6




5

- 4 5 대의원 총회가 무산되자 일부 대의원들은 급하게 자리를 떴으며, 남은 대의원들은 비공식 모임을 갖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 6 대의원 등록부에 사인 2개가 모자라 유회된 대의원 총회

떠나지 않은 일부 대의원들을 위주로 비공식 모임을 갖고, 다시 한번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육계자조금준비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3개 단체에서 거출된 예산도 4번의 대의원 총회 개최로 바닥이 드러난 상태이며, 게다가 농림부에서는 올해도 육계자조금 사업을 출범시키지 못한다면 육계부문의 자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한 의무자조금 사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육계 계열화 업체를 중심으로 한 임의자조금 사업을 추진해서라도 하루빨리 닭고기 소비홍보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임의자조금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바통은 다시 육계자조금준비위원회로 넘어갔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과 일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사뭇 궁금해진다. 

- 취재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